

# 김훈 역사소설의 비역사성

- 『칼의 노래』,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

정 건 희 \*

## I. 머리말

바야흐로 역사물의 전성시대다. 비단 문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 문화의 뚜렷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의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당면한 우리시대의 현실과 그 내용들에 대한 불만족과 위기의식의 발로로 해석이 가능하다. 동시대의 현실로부터 눈을 돌려 역사 속의 시대상, 사건, 인물에 대한 향유와 재조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유행은 ‘현실 혹은 가까운 과거에서 어떤 좌표를 찾기 어려운 시대의 한 특징’<sup>1)</sup>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탈근대와 거대담론의 몰락에서 출발한 과학, 역사, 문학의 파편화 경향, 미시담론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여 역사이야기가 귀환하고 있다는 관점<sup>2)</sup>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사실 우리 근대문학사 내에서도 역사소설의 대두는 일정한 주기를 지니고 반복되어 왔다. 일제 통치하에 있던 1930년대는 역사소설의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과정

1) 서덕순, 「2000년대 역사소설에 나타난 비역사성의 양상 -김훈, 신경숙, 김영하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8, 한국문예창작회, 2009, 87쪽.

2) 김기봉, 「종말론 시대, 역사이야기의 귀환」, 『서강인문논총』 23,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68쪽.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광수, 김동인, 이태준, 홍명희 등 당대 최고의 작가들에 의해 앞다투어 역사소설이 발표되었으며, 가깝게는 군사독재시기인 1970년대에 박경리의 『토지』, 황석영의 『장길산』 등 대하역사소설을 위시한 다양한 역사소설들이 쏟아져 나왔다. 암울한 현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역사라는 소재로 회귀하여 정체성을 찾고 이데올로기를 담아내고자 하는 경향은 다분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근래의 역사소설과 역사물의 범람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소 궤를 달리하고 있으며 그 새로운 경향의 중심에 김훈의 역사소설들은 위치하고 있다.

근대 문학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전통적인 사유는 대체로 ‘역사소설에서는 역사적 상황과 인물들의 실존, 즉 실제 있는 그대로의 존재(Geradeso-Sein)를 문학적인 수단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sup>3)</sup>하다고 서술한 루카치의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루카치의 견해에 따르면 역사소설은 결국 한 시대의 전체성 그리고 민중의 총체성을 담아내는 서사로 정의되며, ‘역사’와 ‘소설’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sup>4)</sup>하는 것이다. 인류의 총체적 진보를 전제로 하는 근대적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이념으로서의 역사개념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만들어가는 역사’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역사와 소설의 구분 위에서 역사의 문학적 재현을 추구한 근대적 역사소설에도 이는 그대로 투영되어 문학으로 인간과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근대 소설의 문제의식을 역사를 통해 구현해야 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역사소설은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역사의 재구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창작되었고, 필연적으로 영웅적 인물이나 문제적 사건 중심의 거대 서사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었다.

3)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옥 옮김, 『역사소설론』, 거름, 1987, 44쪽.

4) 이태근, 「신역사주의와 한국 역사소설의 신경향 : 김훈, 김영하, 김연수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4쪽.

김훈의 작품을 위시한 최근의 역사소설들이 앞 시대의 역사소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이와 같은 거대 서사중심의 역사와 그 문학적 형상화를 거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뉴 에이지 역사소설’이라고 불리는 2000년대 역사소설들이 가지는 성향을 서덕순은 비역사성(non-historicity)<sup>5)</sup>이라는 개념으로 응집하고 있다. 역사를 소설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현해내고자 했던 기존의 역사소설들과는 달리, 거대 담론이 해체되고 미시 담론이 도래하는 탈근대 안에서 비역사성을 보이는 작품들은 역사보다 소설에 방점이 찍히고, 오히려 소설 창작을 위한 수단의 개념에서 역사를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김훈의 역사소설들은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언어의 사용, 감각의 재구, 현실 인식 등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II. 역사소설과 비역사성

### 1. 역사소설의 유형

김훈의 역사소설을 비역사성으로 설명하려면 먼저 역사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일반론적 유형 구분이 요구된다. 언급했듯 비역사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학 이론의 자장 안에서 아직 분명한 합의를 통해 정립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역사적이지 않은, 혹은 역사성이 결여된’ (non-historical) 측면을 비역사성이라는 개념으로 조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되던 역사성의 문제, 특히 역사소설이 지닌 일반적인 특성과 유형에 대한 일종의 대타향으로 파

---

5) 서덕순은 김훈, 신경숙, 김영하의 역사소설을 예로 들어 비역사성의 특징으로 역사성이 제거된 역사의 무대,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의 역사 이야기, 기존의 역사소설과 역사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해체 등을 언급한다. 본문에서 인용하는 비역사성의 개념은 서덕순의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

서덕순, 앞의 글, 90쪽.

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장르론은 개별 연구자들의 문학 전반과 해당 장르를 바라보는 각각의 관점차가 존재하기에 지난한 문제이며 이는 역사소설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역사소설의 경우는 역사와 소설이라는 두 주체가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관계적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 혹은 문학이라는 한 쪽의 기준만으로 선불리 재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성으로 대변되는 역사와 허구성에 기반을 둔 소설적 구성의 비중, 우선순위에 대한 각기 다른 사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소설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뤄지고, 또 그 유형적 분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의 틀이 주장된 것은 그와 같은 모호성에 비춰볼 때 당연한 현상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정의는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허구적 상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산물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역사소설의 장르적 유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이뤄졌다. 역사소설의 유형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은 조셉 W. 터너의 분류법<sup>6)</sup>이다. 터너는 역사소설과 소설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역사소설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두 종류의 경계가 설정되는데 하나는 ‘역사 소설’과 ‘역사 서사’의 경계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 소설’과 ‘소설’의 경계이다. ‘역사’에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소설’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자는 역사 서사와 역사 소설 간의 관계를, 후자는 역사 소설과 소설 간의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 소설과 역사 ‘소설’의 경계 구분에 근거하여 터너는 ‘역사’ 소설에 근접한 경우를 ‘기록적’ 역사소설, 역사 ‘소설’에 근접한 경우를 ‘창안적’ 역사소설로 분류하고 그 중간 지점에 ‘가장적’ 역사소설을 설정하여 자신의 분류 기준을 확립한다.

기록적 역사소설은 실제적(사실적) 인물들에 내재해 있는 존재론적

6) 대중서사학회 著,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3, 30-33쪽 참조.

지위에 문제를 두고 있다. 사실적 인물들이 대부분 역사적 ‘정확성’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소설가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창작을 통해 작업하는 경우와는 다른 서사상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볼 때 기록적 역사소설은 사건, 인물 등의 구성 요소를 역사 서사와 거의 동일하게 공유하게 되며, 공적 역사를 그리는 까닭에 역사와 허구의 관습적 구분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반면 창안적 역사소설은 리얼리즘 소설과 역사소설 간의 연관성에서 비롯된 소설적 장치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 과정에서 소설의 시·공간적 무대와 작가의 관계가 결정인자로 작용하게 되는데, 소설의 시간적 거리가 작가와 멀어질수록 역사적 상상력과 해석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종합해보면 기록적 역사소설에 가까워질수록 역사 서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 지평의 종류가 증가하며, 창안적 역사소설에 가까워질수록 사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소설적 장치에 대한 관심의 부각으로 소설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더불어 기록된 과거를 변장하여, 역사성과 함께 소설적 상상력과 개연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가장적 역사소설이 그 둘 사이의 경계 선상에 위치하면서, 연속체를 이루는 세 범주는 역사성과 허구성의 역학관계, 허구성과 이를 정당화하는 형식적 장치로서의 소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2. 비역사성의 위치

터너의 분류법을 적용하여 이재선의 『한국 현대 소설사』는 한국의 현대 역사소설의 유형을 이념적, 정보적, 배경적 역사소설로 나누고 이를 다시 ‘역사’ 지향적인 역사소설과 ‘소설’ 지향적인 역사소설로 재분류한다.<sup>7)</sup> 이에 따르면 ‘역사’ 지향적인 역사소설은 기록적 역사소설의 면모를 띠고, 기록된 과거를 변장하는 가장적 역사소설이 있으며, ‘소설’ 지향적인 역사소설은 창안적 역사소설의 범주로 포섭된

7) 위의 책, 13-15쪽 재인용.

다. 이를 우리 역사소설사에 적용해보면 30년대의 역사소설은 기록적+가장적 역사소설의 성행으로 요약할 수 있고 반면 70-80년대는 창안적 역사소설의 시대로 설명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안수길의 『북간도』와 같은 작품은 기록적 역사소설의 유형에 속하게 되고 황석영의 『장길산』이나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같은 작품은 창안적 역사소설로 보는 견해<sup>8)</sup>가 성립하는 것이다.

공임순의 경우는 이재선의 유형론에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터너의 분류법에 20세기 후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환상적 양식을 추가하여 기록적/가장적/창안적/환상적 역사소설의 네 가지 유형을 주장<sup>9)</sup>하고 있다. 이는 창안적 역사소설의 진폭판으로는 온전히 파악되지 않았던 평면적인 역사적 시공간을 벗어나 규범화된 리얼리티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지닌 역사 '소설' 들, 기존의 역사소설에 대한 논의에 비춰볼 때 장르 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작품들을 역사소설의 유형으로 포섭해 설명하려는 시도로 비춰진다.

비역사성 개념의 고찰은 역사소설의 유형에 대한 터너의 분류와 이에 바탕을 둔 한국의 역사소설에 대한 논의 위에서 출발한다. 터너가 설정한 두 경계인 '역사 소설//역사 서사'와 '역사 소설//소설'에 따라 기록적 역사소설과 창안적 역사소설을 분류한다면, 비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최근의 역사소설들은 일단 그 중층지대에 있는 가장적 역사소설의 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록적 역사소설보다는 창안적 역사소설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 특히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김훈의 역사소설들은 역사적 인물들을 형상화하면서도 소설적 상상력과 개연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유사한 시도를 한 선대 작품으로는 공임순이 가장적 역사소설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김동인의 『대수양』<sup>10)</sup>과 김동인의

8) 위의 책, 38쪽.

9) 앞의 책, 38-39쪽.

10) 공임순,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77쪽.

또 다른 작품인 『젊은 그들』을 들 수 있다. 공적 인물의 역사성을 한 축으로 하여 인물의 내면적 고뇌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록적 역사소설과는 달리 인물의 뒤로 숨어 인물의 심리나 고뇌를 전경화<sup>11)</sup>하는 방식으로 기존 역사적 해석의 전복을 꾀하는 이와 같은 작품들은 서덕순이 비역사성의 근거로 언급한 ‘역사소설과 역사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해체’의 작업과도 일정 부분 닿아있다.

공임순이 가장적 역사소설의 예로 언급한 또 다른 작품인 홍명희의 『임궏정』은 역사와 인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화<sup>12)</sup>를 통해 공적 역사에서 배제되어 있던 주변적 인물들을 조망하면서 소설적 개연성을 획득하려 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역사에 대한 해체를 통해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에 다다르려는 비역사성의 시도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역사 속에 기록된 주인공들의 비극적 운명을 나름의 시각으로 형상화하는 『임궏정』의 소설적 구상 또한 김훈의 『칼의 노래』나 『남한산성』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기록적 역사소설로 표상되는 공적 역사의 충실한 재현 시도에서 벗어나 ‘공적 역사의 탈중심화와 주변적 역사의 재인식’<sup>13)</sup>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장적 역사소설로 분류되는 선대의 역사소설들은 최근의 역사소설이 가지고 있는 비역사성의 발현을 어느 정도는 이미 담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는 비역사성의 특성과 기원이 기존의 역사소설 유형론과 교점을 지님을 보여주며, 비역사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역사 ‘소설’ 또한 역사소설의 장르적 범주 안에서 다룰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역사와 서사 간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하는 역사소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일정한 체계로 설명하고자한 앞서의 분류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함의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분류 간의 차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역사에 대한 작가 나름의 입장을 담은 역사의식과 이에 따른 역사의 재현 혹은

11) 위의 글, 85쪽.

12) 위의 글, 89쪽.

13) 위의 글, 96쪽.

재해석이 소설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공히 수행되어 왔다는 점이 그것이다. 역사소설의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합의가 유형론적 분류를 통해서 오히려 재확인되는 셈이다. 바로 이 지점이 비역사성의 위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차별화의 근거로 작용한다. “역사가 이제는 이념이나 흥미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스타일의 개성과 상상력의 차원에서 미적인 것으로 전유되고 있는 것”<sup>14)</sup>으로 파악되는 일련의 새로운 역사소설들은 역사를 이용해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상당부분 벗어나고 있다. 이런 탈근대적, 탈중심적 서사들은 기존 유형론의 틀 안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주목되며, 이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김훈의 역사소설이 보여주는 비역사성의 양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 Ⅲ. 비역사성의 징후들

#### 1. 말(言)을 다루는 방식

김훈의 역사소설에서 ‘말(言)’은 중요한 모티프이다. 역동적인 사건 전개를 동인으로 하지 않는 작품의 특성과 맞물려 주인공들의 사유와 현실 인식을 이해하고 주제의식을 포착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다. 작품의 주인공들, 나아가 작품 전반을 주재하는 작가의 말에 대한 태도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임금의 언어와 임금의 울음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임금은 울음과 언어로 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언어와 울음이 임금의 권력이었고, 언어와 울음 사이에서 임금의 칼은 보이지 않았다. 임금의 전쟁과 나의 전쟁은 크게 달랐다. 임진년에 임금은 자주 울었고, 장려한 교서를 바다로 내려 보냈으며 울음과 울음 사이에서 임금의 칼날은 번뜩였다. 임진년에는 갑옷을 벗을 날이 없었다. 그때 나는 임금의 언어와 울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sup>15)</sup>

14) 서덕순, 앞의 글, 3쪽 재인용.



종사관 김수철이 나에게 제출한 장계 초안은 정직했고, 정직한 만큼 어려숙했다.

김수철의 초안은 사실에 입각하려고 애썼고,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분명히 구분했다. 10만쯤으로 되어 보이는 적병들이 몰려왔다가 8만쯤으로 되어 보이는 적병들이 죽었고 적선 1백여 척을 깨뜨렸다고 김수철은 썼다. 적의 시체가 바다에 가득 뗏으나 전투 상황이 급박하여 다만 머리 여덟 통을 수습해서 도원수부로 보냈다고 김수철은 끝을 맺었다.

나는 김수철의 초안을 대폭 수정했다. 적병의 숫자를 모두 지웠고, 포격과 불화살로 깨뜨린 적선은 30척이며, 적의 수급(首級) 여덟을 얻었다고 고쳤다. 그것도 모두 사실이었다. 깨어진 적선이 얼마인지 헤아릴 길은 없었으나 아군의 공격으로 깨뜨린 적선은 30척이었고 나머지는 물살에 휘말리면서 적선들끼리 부딪혀 깨어졌다.<sup>15)</sup>

‘칼의 노래’라는 제목이 지닌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기 대목은 언어에 대하여 이순신이 가지는 불신과 회의를 압축하여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임금의 언어와 울음으로 상징되는 ‘말의 전쟁’은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서 받아들일 수도, 투쟁할 수도 없는 형태로 다가오는 또 다른 전쟁이기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실제 전투보다 이순신에게 더욱 버겁고 두려운 그 무엇이다. 수시로 내려 보내는 임금의 교서들은 장려한 수사 속에 공허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비어있음 안에 수많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지녔기에 섬뜩하게 다가온다. 소통이 아닌 언어 앞에서 자신의 전쟁을 언어로 입증해야하는 이순신의 고뇌는 조정으로 보내는 장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승을 거둔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종사관의 초안과는 달리 지극히 철저하게 사실에만 입각하여 전과를 기록하여 보고한다. 이로써 최소한 자신의 언어에 있어서만은 불확정성과 내용 없음을 결백증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15) 김훈, 『칼의 노래』, 생각의 나무, 2001, 231쪽.(이하 작품 제목과 쪽수만 표시.)

16) 『칼의 노래』, 135-6쪽.

임진년의 세월은 정초부터 흥흥했다. 그 전해에도 그랬고, 또 그 전해에도 그랬다. 길삼봉이라는 이름의 허깨비가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며 산천에 피를 뿌리고 있었다. …… 마침내 길삼봉은 누구냐?라는 질문은 누가 길삼봉이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질문의 구조가 바뀌자 길삼봉의 허깨비는 피를 부르기 시작했다. …… 우의정 정철이 그 피의 국면을 주도했다. 정철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민첩하고도 부지런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근면히 살육했다. 살육의 틈틈이, 그는 도가풍의 은일과 고독을 수다스럽게 고백하는 글을 짓기를 좋아했다. 그의 글은 허무하고 요염했다.<sup>17)</sup>

역모의 주모자로 풍문을 떠돌던 길삼봉을 색출하는 과정과 이를 주도한 정철에 대해 묘사하는 대목에서 언어에 대한 직접적인 회의는 더욱 두드러진다. 말을 매개로 하여 ‘모든 헛것들은 실체의 옷을 입고, 모든 실체들은 헛것의 옷을 입고 있는 모양’<sup>18)</sup>으로 임진년의 세계를 파악하면서 이순신은 적에 대한 피아간의 식별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언어의 허무함과 요사스러움에 진저리를 친다. 헛것은 베어지지 않기에 맞서 싸우는 것조차 불가능한 까닭이다.

‘말로써 정의를 다룰 수 없고, 글로써 세상을 읽을 수 없으며, 살아 있는 동안의 몸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다 받아내지 못’<sup>19)</sup>한다는 작가의 말로 서두를 여는 『남한산성』에서는 말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해 언어로 담아내는 세계 그 자체에 대한 불안감마저 읽힌다.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는 자들은 감힌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궐해서 주린 성에 넘친’<sup>20)</sup> 40여 일 간의 항쟁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재현해냈기에, 소설은 말에 대하여 그만큼 더 냉소적이며 자조적이다.

… 전하, 지금 성 안에는 말(馬)면지가 자욱하고 성 밖 또한 말(馬)면지가 자욱하니 삶의 길은 어디로 뻗어 있는 것이며, 이 성이 대체 돌로 쌓

17) 『칼의 노래』, 53-54쪽.

18) 『칼의 노래』, 50쪽.

19) 김훈, 『남한산성』, 학교재, 2007, 4쪽.(이하 작품 제목과 쪽수만 표시.)

20) 『남한산성』, 5쪽.

은 성이웁니까, 말로 쌓은 성이웁니까.<sup>21)</sup>

칸은 붓을 들어서 문장을 쓰는 일은 없었으나, 문헌관들의 붓놀림을 엄히 다스렸다. 칸은 고사를 글에 대거나, 전적을 인용하는 문장을 금했다. 칸은 문체를 꾸며서 부화한 문장과 뜻이 수줍어서 은비한 문장과 말을 멀리 돌려서 우원한 문장을 먹으로 문갠고, 말을 구부러서 잔망스러운 문장과 말을 늘려서 게으른 문장을 꾸짖었다. 칸은 늘 말했다.

— 말을 접지 말라. 말을 구기지 말라. 말을 펴서 내질러라.<sup>22)</sup>

고립된 산성 안에서 맞서 싸우지도, 그렇다고 투항하지도 못하는 이을배반적인 상황에 빠진 인조와 당상, 당하들은 오직 말로써 전쟁을 수행한다. 임금과 신하, 척화와 주화, 명령을 내리는 자와 받드는 자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말은 어지러이 난립하지만 이는 최명길의 삼키는 말에서 언급되듯 실체가 없는 먼지와도 같은 투쟁일 뿐이다. 그리고 이 허깨비 같은 말의 성은 청나라의 칸이 몰고 온 성 밖의 말(馬)먼지에 휩쓸려 무너져버린다. 힘없는 임금과 말뿐인 문약한 신료들의 나라가 간단히 허구화되는<sup>23)</sup> 모습과, 말이 아닌 몸으로 전쟁을 버터낸 이시백이나 서날쇠, 백성들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면서 소설은 실제적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의 권력이 지닌 허구를 폭로하고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것들, 기록 사이로 새어 나간 것들의 의미를 향해 말없이 눈을 돌린다.

언어에 대한 뿌리 깊은 회의는 ‘소재로서의 말’ 뿐 아니라 작가가 작품 안에서 언어를 통해 형상화하는 ‘도구로서의 말’, 즉 문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문체에는 작가의 세계관과 주제가 복합적으로 얹혀있기에 어떠한 문체 자질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전달 효과는 물론 주제까지도 변화될 수 있음<sup>24)</sup>을 상기해보면 회의적인 언어의

21) 『남한산성』, 197쪽.

22) 『남한산성』, 284쪽.

23) 김주언, 「김훈 소설의 자연주의적 맥락」,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240쪽.

24) 홍혜원, 「김훈의 『칼의 노래』 연구」, 『구보학회』 2, 구보학회, 2007, 400쪽.

사용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었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었다. 임진년 개전 이래,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믿었다기보다는, 그렇기를 바랐다. 그 바람은 숨막혔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해보자. 사실 나는 무인된 자의 마지막 사치로서, 나의 생애에서 이기고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나는 다만 무력할 수 있는 무인이기를 바랐다. 바다에서, 나의 무(武)의 위치는 적의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마지막 사치는 성립될 수 없었다.<sup>25)</sup>

칼로 적을 겨눌 때, 칼은 칼날을 비껴선 모든 공간을 동시에 겨눈다. 칼은 겨누지 않은 곳을 겨누고, 겨누는 곳을 겨누지 않는다. 칼로 찰나를 겨눌 때 칼은 칼날에 닿지 않은, 닥쳐올 모든 찰나들을 겨눈다. 적 또한 그러하다. 공세 안에 수세가 살아 있지 않으면 죽는다. 그 반대도 또한 죽는다. 수(守)와 공(攻)은 찰나마다 명멸한다. …… 칼은 죽음을 내어주면서 죽음을 받아낸다.<sup>26)</sup>

칸의 문서가 성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아무도 칸을 보았다는 자가 없었지만 칸은 일월처럼 확실하게 성 밖에 와 있었다. 칸의 존재는 망월봉 위의 황색 일산과 도망쳐 온 망꾼의 진술에 실려 성 안으로 들어왔고, 성 안으로 들어온 칸의 그림자는 다시 풍문으로 풀어졌다. 서장대에서 내려다보이는 청궁의 접근으로 풍문은 또 확실해졌는데, 확실한 것이 다시 풍문으로 떠다녔다.<sup>27)</sup>

당하들의 울음은 반듯하고 단정했다. …… 삼백 년 종사가 길러 낸 임금의 금지옥엽들이었다.<sup>28)</sup>

김훈의 문장은 유장한 산문이지만, 동시에 운율과 여운이 담겨있어 지극히 시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탐미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대구와 반복, 모순적 개념의 동시적 사용을 통한 문장의 변주에 있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과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서로에게 있기에 이기고 짐이 없이 무력할 수 있는 무인이고 싶었다는 대구적 독백 안에서 승리와 패배, 무력함과 무인이라는 모순적 개념은 마치 원래부터 공존 가능하다는 듯이 양립한다. 겨누지 않는

25) 『칼의 노래』, 41쪽.

26) 『칼의 노래』, 202쪽.

27) 『남한산성』, 269쪽.

28) 『남한산성』, 272쪽.

곳을 겨누고, 겨누는 곳을 겨누지 않기에 죽음을 내어주면서, 죽음을 받아내는 칼의 속성을 말하는 부분은 그 문제만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야만 하는 언어의 필진성에 대한 비유로 다가온다. 풍문이 확신으로, 확신이 다시 풍문으로 끝없이 순환하는 남한산성 안의 풍경 묘사는 ‘과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역설적으로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모순적 어구의 대구와 병치가 중심이 된 문장들로 작가는 대상의 온전한 모습과 속성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언어가 현실을 기록할 수 있는가’라는 자신의 근본적인 물음을 소설적으로 형상화<sup>29)</sup>하고 있다.

## 2. 감각의 재구

김훈의 역사소설은 말로써 존재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는 대조적으로 몸으로써 존재하는 이들에게는 객관화된 묘사의 틀 안에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나 다만 고통 받는 자들의 편’<sup>30)</sup>이라는 작가의 말은 그런 면에서 고통으로 상징되는 ‘감각’에 초점을 맞출 것을 미리 시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나는 그 장터에서 송여종, 안위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 백성의 국물은 깊고 따뜻했다. 그 국물은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온 진액처럼 사람의 몸 속으로 스며들었다.<sup>31)</sup>

임금과 신료들, 백성들과 군병과 노복들이 냉이국을 밥을 말아 먹었다. 언 땅에서 뿜아낸 냉이 뿌리는 통째로 씹으면 씹쌀했고 국물에서는 해토머리의 흙냄새와 햇볕 냄새가 났다. …… 냉이국을 넘기면서 임금은 중얼거렸다. 백성들의 국물에서는 흙냄새가 나는구나.<sup>32)</sup>

끼니는 어김없이 돌아왔다.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단 한 끼니 앞

29) 홍혜원, 앞의 글, 401쪽.

30) 『남한산성』, 5쪽.

31) 『칼의 노래』, 220-221쪽.

32) 『남한산성』, 265-266쪽.

에서 무효였다. 먹은 끼니나 먹지 못한 끼니나, 지나간 끼니는 닥쳐올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다. 끼니는 시간과도 같았다. 무수한 끼니들이 대열을 지어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나간 모든 끼니들은 단절되어 있었다. 굶더라도, 다가오는 끼니를 피할 수는 없었다. 끼니는 과도처럼 정확하고 설새없이 밀어닥쳤다. 끼니를 건너뛰어 앞당길 수도 없었고 옆으로 밀쳐낼 수도 없었다. 끼니는 새로운 시간의 밀몰로 달려드는 것이어서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 먹든 굶든 간에, 다만 속수무책의 몸을 내맡길 뿐이었다. 끼니는 칼로 베어지지 않았고 총포로 조준되지 않았다.<sup>33)</sup>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에는 밥을 먹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단순히 언급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행동이 지니고 있는 단순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포착해내려는 듯 보인다. 하천의 물길을 살피러 가는 길에 장터에서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이순신은 백성들의 국물에서 몸 속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근원적인 생명력을 체험한다. 고립된 식량 부족의 상황에서 백성들의 음식인 냉이국을 먹으면서 인조 역시 흙냄새와 햇볕 냄새로 표현되는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고 이를 백성들과 등치시키고 있다. 또한 ‘밥’이라는 소재목이 붙은 마지막 인용문처럼 생선, 국물, 소금, 무, 찹 등 음식의 이름이 종종 각 장의 제목으로 붙어 끼니와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밥을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설사 만인지상의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식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진다. 언어든, 칼이든, 적이든, 자기 자신이든 항상 단정을 저어하고 인식의 상대성을 고백해왔지만 식욕이라는 근원적 감각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는 단호히 고정되어 있다. 이는 ‘살아낸다’는 사실을 그 어떤 거창한 가치에 앞서는 존재의 본질로 여기는 김훈의 현실인식을 대변한다. 전쟁조차 ‘나라’의 충위가 아닌 삶의 충위에서 인식<sup>34)</sup>되고, 그 삶은 결국 개별적인 ‘몸’의

33) 『칼의 노래』, 232-233쪽.

34) 장성규, 「재현 너머의 흔적을 복원시키는 소설의 욕망」, 『실천문학』

문제로 치환된다는 점을 끼니를 때우는 행위를 통해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의 본질을 개별성으로 절실하게 인지하고 있기에 이 순신은 ‘그 개별성 앞에서 나는 참담했다. 내가 그 개별성 앞에서 무너진다면 나는 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었다.’<sup>35)</sup>고 고백한다. 결국 이념이나 이해관계 같은 추상적 가치를 보편화하려는 시도의 하나로써 전쟁을 통찰하면서 그와 같이 ‘크고 확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당위를 거부하고 개별 주체의 실체적 감각을 통한 인식만을 긍정하고 있다.

시퍼런 칼은 구름 무늬로 어른거리면서 차가운 쇠비린내를 풍겼다. 칼이 뜨거운 물건인지 차가운 물건인지를 나는 늘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칼을 코에 대고 쇠비린내를 몸 속 깊이 빨아넣었다. 이 세상을 다 버릴 수 있을 때까지, 이 방책 없는 세상에서 살아 있으라고 칼은 말하는 것 같았다.<sup>36)</sup>

오랫동안 뒷물하지 않은 여자의 날비린내 속에서 내 몸은 나로부터 아득해져 갔고, 또 돌아왔다.<sup>37)</sup>

나는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 바람결에 화약 연기 냄새가 끼쳐왔다. 이 길 수 없는 줄음 속에서, 어린 면의 젖냄새와 내 젊은날 함경도 백두산 밑의 새벽 안개 냄새와 죽은 여인의 몸 냄새가 떠올랐다. 멀리서 임금의 해소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냄새들은 화약 연기에 비비지면서 멀어져갔다.<sup>38)</sup>

조선 왕은 오랫동안 이마를 땅에 대고 있었다. 조선 왕은 지심 속 흙 냄새를 빨아들었다. 벌에 익은 흙은 향기로웠다. 흙냄새 속에서 살아가야 할 아득한 날들이 흔들렸다.<sup>39)</sup>

후각을 필두로 감각적 표현을 다채롭게 활용한 강렬한 묘사는 김훈의 역사소설을 특징짓는 대목 중 하나이다. 서술의 시점과 무관하게 등장인물들의 내면적 사유와 감정은 직접적인 언어나 발화(發話)가

86, 실천문학사, 2007, 214쪽.

35) 『칼의 노래』, 300쪽.

36) 『칼의 노래』, 40쪽.

37) 『칼의 노래』, 45쪽.

38) 『칼의 노래』, 388쪽.

39) 『남한산성』, 355쪽.

아닌 대상에 대한 감각적 묘사를 통해 세밀하게 조감된다. 현실을 이성적 통찰로서 라기 보다는 ‘감각’으로 인식<sup>40)</sup>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언어와 그 언어를 거쳐 직조된 세계의 모습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또한 감각으로 대변되는 몸의 언어를 현실을 인지하는 유일한 통로로 긍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인식의 주체인 각각의 개개인의 삶이란 하나의 관점 혹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 판단될 수 없는 개별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보았으므로 안다’<sup>41)</sup>라는 소설 속 이순신의 언급은 감각이 닿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는 불가해성이 존재하기에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역설이 담겨있다.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의 산물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실재하는 개별적인 육체의 감각을 집중적으로 재현하면서 실존의 문제 너머에 위치하는 말(言)의 먼지들, 보편성의 외피를 입은 거대 담론들이 덧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IV. 연민과 허무의 서사

언어와 감각을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나듯 김훈의 역사소설이 던지는 핵심적인 화두는 소설 속 임금과 조정이 표상하는 권력, 이념과 사상, 정당성과 같은 추상적인 거대 담론의 덧없음, 무가치성을 그려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순신은 구국의 성웅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실체인 적과 실체가 잡히지 않는 후방의 적을 동시에 맞아 전쟁을 수행했던 불완전하고 고뇌하는 실존적 인물로 재해석된다. 또한 역사적 사건과 역사 속 인물의 커다란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작은 개인들은 감각과 실존에의 긍정을 매개로 도약하여 새로이 복원된다. 김훈의 역사소설들이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40) 손주현, 「아수라 시대, '작은'영웅의 감각적 서사 -김훈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3, 이화어문학회, 2005, 94쪽.

41) 『칼의 노래』, 24쪽.



답답한 현재를 살아가는, 영웅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마찬가지로 출구 없는 시대를 살아내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연민과 위로 속에 투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훈 역사소설의 비역사성 또한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 ‘언어의 공허함과 거부된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자각을 통해 감각을 매개로 현실 앞에 선 실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에 이 작품들은 지극히 당대적이면서 현실재현적이다. 허무를 통해 이데올로기와 대결하는 개인<sup>42)</sup>의 모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수단으로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성이 배제된 배경으로서의 역사가 요청된 것일 뿐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역사가 아니라 다만 사람이며, 기존의 역사소설이 추구했던 목적의식과도 거리를 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재적인 서사이기에 김훈의 역사소설은 전통적 의미의 역사소설이 아닌 탈근대적 ‘소설역사’<sup>43)</sup>로 읽힌다. 이는 기존 역사소설과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비역사성의 개념과 연관시킬 때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앞서 역사소설의 유형론과 연계하여 비역사성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역사소설들은 터너의 분류법에 의거, 기록적/가장적/창안적 역사소설의 스펙트럼 내에서 각기 다양한 위치에 존재하지만 역사와 소설의 분리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출발한 역사소설의 정체성 문제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역사소설의 정의에는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이념의 역사, 즉 ‘만들어가는 역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살펴보았다. 그렇기에 앞 시대의 역사소설은 소설을 수단적 가치로 이용하면서, 역사 자체를 조망하거나 혹은 작가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역사의식과 이념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태도를 취해온 것이다.

김훈의 역사소설들은 표면적으로 공적 역사를 변용하여 재해석하면서 소설적 상상력과 개연성을 추구하는 가장적 역사소설의 범주에서

42) 장성규, 앞의 글, 212쪽.

43) 김기봉, 앞의 글, 68쪽.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은 다소 이질적이다. 역사/서사 혹은 역사성/개연성 같은 정체성의 문제는 애초부터 고려 대상도 아니고 형상화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소설에는 전쟁이라는 공적 역사의 배경이 무대로 등장하지만 언어와 감각에의 집중을 통해 대문자 역사에서 시선을 거두고, 시대를 초월한 현실 세계의 모순과 허무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사소설로서의 역사성을 스스로 탈색시키고 있다. 온갖 언어로 다가오는 헛것과 실체 사이에서 베어지지 않는 무의미에 대해 강박적으로 고민하는 이순신의 내면이나, 말(言)먼지에 휩싸여 삶의 길을 잃어버린 남한산성의 모습들은 그의 역사소설이 역사와 해석, 기록과 창안의 경계가 아니라 실존과 허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 위에서 모색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역사란 쓰는 일 자체를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가라타니 고진의 말<sup>44)</sup>에서 보듯 역사는 인식의 결과물이며 언어는 그 인식을 가능케 하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이다. 그런 면에서 언어의 실체 없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김훈 역사소설의 포즈는 역사 자체에 대한 회의와 허무주의의 발로로 읽힌다. 이는 역사성이 제거된 소설의 무대로 역사를 활용하는 서사 방식과 맞물려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 역사 보다는 작가를 둘러싼 현실 세계의 문제 인식과 그 소설적 형상화에 비중을 두고 ‘소설역사’를 구현하는 비역사성을 형성한다. 비역사성 자체가 차별적 특성을 짚어내고자 하는 여집합적 개념이기에 근래의 새로운 경향을 지닌 역사소설들을 비역사성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일관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김훈의 역사소설은 그와 같은 새로운 경향-역사성에 대한 강박의 탈피나 모순적 개별성으로서 미시사예의 주목, 역사와 역사소설에 대한 해체의 시도-의 태동을 건인하고 또한 대변하는 작품임에는 분명하다.

44) 최영자, 「이데올로기적 환상으로서의 김훈 소설」, 『우리문학연구』 26, 우리문학회, 2009, 375쪽 재인용.

## V. 맺음말

지금까지 역사와 서사의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소설의 정체성과 유형론을 간략하게나마 일고하고 그 안에서 우리 역사소설의 새로운 경향으로 주목되는 비역사성을 어떻게 개념 지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또한 김훈의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을 언어와 감각의 측면에 집중해 읽어내면서 연민과 동질감, 회의와 허무를 유발하는 소설적 구상과 내용이 그런 비역사성의 징후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았다.

김훈의 역사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겹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균열하는 존재들<sup>45)</sup>이며 실제 현실에 대한 작가의 현실인식과 주체의식이 전면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출구 없는 패배의 길 위에 선 인물들을 담아낸 『남한산성』이나 누가 진정한 적인지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이순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칼의 노래』 모두 그러하며 주목되는 것은 국가와 민족, 충(忠)의 가치, 이념의 대립과 같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매순간 자각하는 현실의 실존 그 자체다. 이처럼 세계 자체를 궁극적으로 불가해한 것으로 보는 가치관은 결국 진정한 소통과 변화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지극히 상대적이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기에 결국 허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비역사성의 일정한 기반으로 작용하는 이와 같은 허무주의는 바람직한 역사의식의 확립이나 문학의 사회적 책임과 참된 가치를 강조하는 전통적 입장에서 볼 때는 대안도 윤리도 부재한 해체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또한 거대 담론에 대한 거부 태도 자체가 모든 거대 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무의식에 이미 포획되어 있는 특정 거대 담론만을 긍정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sup>46)</sup>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테면 거대한 세계 속에서 진보에 대한 믿음이

45) 송주현, 앞의 글, 160쪽.

46) 김주언, 앞의 글, 241쪽.

결여된 운명론적인 삶의 태도는 이미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회 주도층의 지배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정치적 인 문제의식이며, 일정부분 타당한 지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훈의 역사소설과 비역사성 이면에 드러나는 현실인식은 삶과 역사에 대한 단순한 허무 이상의 시사점이 담겨져 있기에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거대담론을 해체하고 그 공간에 공적 인물과 사건의 재해석과 함께 묻혀있던 주변적 개인과 실존이라는 미시사의 복원을 동시에 시도한 것은 탈근대의 시대상,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기호에 걸맞은 서사를 정확히 포착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역사적 교훈의 추출이나 역사적 사건, 인물에 대한 탐구 등 기존의 역사소설이 수행한 역할 어느 측면에도 관심이 없으며<sup>47)</sup>, 상업적 마케팅에 힘입은 가벼운 팩션성의 작품이 아님에도 다매체 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문학과 역사소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중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그의 역사소설은 세계와 존재에 대한 근원적 허무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작품의 창작이 거듭될수록 단순한 허무의 순환고리에서 머무르지 않은 채 진화하고 있고, 절망의 틈새로 미약하게나마 피어나는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칼의 노래』의 압도적 암울함을 지나 『남한산성』의 말미에서 서날쇠와 나루 등 건장한 실존의 표상으로 이해되는 민중의 재생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부분은 그 단초에 해당할 것이다. ‘물소리 저 너머에서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 목숨과 사물 속에서 스스로 빚어지는 말들이 새로 돌아나고, 그 말들을 찾아서 인간의 삶 속으로 주워 담을 수 있을 것인지’<sup>48)</sup> 고민하는 최근작 『흑산』에 이르면, 비역사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2000년대 역사소설군을 견인하고 있는 김훈 역사소설이 새롭게 도달할 지점이 궁금해진다.

47) 김명석, 앞의 글, 9쪽.

48) 김훈, 『흑산』, 학교재, 2011, 184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훈, 『칼의 노래』, 생각의 나무, 2001.

\_\_\_\_\_, 『남한산성』, 학고재, 2007.

### 2. 단행본

김훈, 『흑산』, 학고재, 2011.

대중서사학회 著,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3.

정호웅, 『한국의 역사소설』, 도서출판 역락, 2006.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옥 옮김, 『역사소설론』, 거름, 1987.

### 3. 논문 및 평론

공임순,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김기봉, 「종말론 시대, 역사이야기의 귀환」, 『서강인문논총』 23,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_\_\_\_\_, 「『칼의 노래』 : 김훈, 생각의 나무, 2003」, 『역사와 문화』 9, 문학사학회, 2004.

김명석, 「다문화 시대 우리 소설의 역사 읽기 -김훈의 『남한산성』 론-」, 『한국문예비평연구』 29,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김주언, 「김훈 소설의 자연주의적 맥락」,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김택호, 「서사와 묘사 : 인간의 삶을 재현하는 두 가지 방법과 작가의 태도」, 『한중인문학연구』 17, 한중인문학회, 2006.

- 서덕순, 「2000년대 역사소설에 나타난 비역사성의 양상 -김훈, 신경숙, 김영하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8, 한국문예창작회, 2009.
- 손주현, 「아수라 시대, '작은'영웅의 감각적 서사 -김훈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3, 이화어문학회, 2005.
- 송근호, 「루카치의 『역사소설론』과 역사소설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 5, 한국문학연구회, 1995.
- 이규현, 「소설에서의 역사의 활용과 글쓰기 -김훈의 『남한산성』과 앗시아 제바르의 Vaste est La prison을 중심으로」, 『불어문화권 연구』 17, 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2007.
- 이태근, 「신역사주의와 한국 역사소설의 신경향 : 김훈, 김영하, 김연수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장성규, 「재현 너머의 흔적을 복원시키는 소설의 욕망」, 『실천문학』 86, 실천문학사, 2007.
- 최영자, 「이데올로기적 환상으로서의 김훈 소설」, 『우리문학연구』 26, 우리문학회, 2009.
- 홍혜원, 「김훈의 『칼의 노래』 연구」, 『구보학보』 2, 구보학회, 2007.